

LANGUAGE
STUDY ABROAD
GUIDEBOOK

미국 어학연수 가이드북



유학연수에 진심을 더하다!
안심 위에 진심, 유학네트

CONTENTS

SPECIAL

INTRO

성공유학을 위한 고객들의 선택, 안심 위에 진심 더한 유학네트

FAM TRIP

모두가 주목하는 유럽 교육 유학플래너가 직접 체험한 알찬 정보들

SPECIAL EDITION 1

워킹홀리데이, 준비됐나요? 떠나기 전에 고려해봐야 할 것들

SPECIAL EDITION 2

전 세계에서 소통되는 '이것' 국제학생증의 모든 것

UNITED STATES OF AMERICA

FOCUS

국가소개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도시소개 미국 주요 도시 소개

SELECTION

명문대부설연수 미국 대학진학 알찬 정보

인턴십 미국, 취업스펙 쌓기도 가능!

영어학교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LIVE REPORT

미국, 현지 이야기가 궁금하다

INFO

유용한 정보 1 미국 학생비자 받는 법

유용한 정보 2 현명한 미국 라이프를 위한 조언



ELS와 함께 여러분의 미래를 실현시켜 보세요.

나만의 해외 연수 경험을 만들어보세요. 영어를 배우러 전 세계 50여 개 ELS 센터로 떠나 보세요.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는 성공입니다.

ELS는 학생 개개인의 목표 달성을 위한 완벽한 영어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ELS는 최대 규모의 대학 캠퍼스 기반 네트워크를 자랑합니다.

ELS 강사진은 영어 교육 분야에서 최고입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대학원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LS의 교재와 자료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며 영어 교육 분야의 최고 저자들이 만든 것입니다.

ELS의 Intensive English 프로그램은 전 세계 650개 이상의 대학교에서 인정받는 프로그램입니다.

ELS를 졸업하기 전에도 제휴 대학교에 조건부 입학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LS 센터가 위치한 제휴 대학교에서 수업 참관 또는 청강의 기회가 있습니다.

STUDY ENGLISH. EXPLORE. SUCCEED.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ELS.edu • UniversitySearch.org



세계를 향한 꿈 유학네트가 함께 열어갑니다

당신의 꿈이 그저 꿈꾸는 것에 멈추지 않도록
20년 후에 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 후회하지 않도록
실패의 두려움을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꿈으로 이어지는 모든 문이 언제나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전 세계의 유학 정보를 하나로 연결하는 글로벌 유학 네트워크,

**유학네트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마음껏 꿈꾸셔도 좋습니다.**





GO FURTHER WITH ENGLISH

믿을 수 있는 교육기업, 카플란

카플란은 1938년 창립자인 스탠리 카플란(Stanley Kaplan)이 뉴욕 브루클린 부모님역 지하에 차린 작은 교습소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수강생들의 성공적인 사례가 거듭됨에 따라 시험준비를 넘어 고등 교육, 영어 교육까지 아우르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를 창간한 그레이엄 홀딩스의 자회사로 편입된 후, Kaplan, Inc.은 전 세계 글자의 교육 사업 및 어학 과정을 자랑하는 세계 1위의 교육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현재 카플란은 전 세계 백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업 및 커리어, 개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카플란에서 제공하는 모든 교육과정은 '모든 결과는 노력의 결과'라는 스탠리 카플란의 창립 정신을 따릅니다.

왜 카플란을 선택해야 할까요?

- 영어권 6개 국가에 위치한 37개 센터
- 전세계 150개국 학생들의 97% 추천율
- 세계 유수의 대학 및 상위 교육 기관과의 긴밀한 파트너십
- 국제 학생의 언어 교육에 탁월한 명성을 지닌 K+ 커리큘럼
- TOEFL®, IELTS, CAMBRIDGE 시험 준비과정, GMAT® 및 GRE® 시험 준비과정 제공
- 주니어 글로벌 캠프, 25세 이상 특화 센터, 40세 이상 특화 과정 등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다양한 과정 제공
- 1:1 과정, 1주 초단기 영어 연수 등 단기 문화 체험 과정 제공
- 전 세계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현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흥미로운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
- 학생 기숙사부터 현지 가정과 생활하는 홈스테이까지, 전문 직원들이 관리하는 프리미엄 숙소

카플란의 4주 무료 재수강 제도, 영어 실력 보장 정책

영어 실력 보장 정책이란 집중영어 과정(10주 이상) 또는 집중 학기제 과정(5,6,8개월)을 등록한 학생들이 오리엔테이션 당일 측정된 최종 도달 예상 레벨에 과정 종료 시점까지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 요구하는 조건에 모두 충족하는 학생들에 한해 추가 무료 4주 학업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에서 제공되며, 자세한 적용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플란의 독자적인 K+ 학습 시스템

K+ 학습 시스템은 카플란의 교육 전문가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습의 장점을 결합하여 개발한 카플란만의 독자적인 통합 영어 학습 시스템입니다. K+의 다양한 교육 자료는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네 가지 분야의 전반적인 실력 향상을 돕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있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줍니다. 언제 어디서나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으며, 과정을 마친 후에도 K+ Online과 K+ Online Extra를 통해 영어 실력을 계속해서 갈고 닦을 수 있습니다.

K+ COURSE BOOKS

깊이있는 영어 학습과 더불어 전반적인 지식 함양과 교양 습득이 가능한 카플란 자체 개발 수업 교재

K+ LEARNING CLUBS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를 탐구하고 교실에서 배운 영어를 연습할 수 있는 회화 스터디 그룹

K+ ONLINE

언제 어디서나 접속하여 강의 내용을 복습하고 선생님 피드백을 전달받을 수 있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

K+ ONLINE EXTRA

문법, 발음, 어휘 영역의 더욱 빠른 실력 향상을 이끄는 온라인 자기주도 학습 자료

카플란의 프리미엄 과정 소개

미국 GMAT®/GRE® 시험 준비과정

카플란은 미국 내 GMAT®/GRE® 시험 준비과정을 제공하는 유일한 어학교로 독자 개발한 교재를 사용하며 전 영역을 학습할 수 있는 탄탄한 커리큘럼으로 높은 퀄리티의 수업을 자랑합니다. GMAT® 시험 준비 과정의 경우, 실전 모의 시험을 제공하여 더욱 체계적인 시험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40세 이상 영어과정

영어공부와 문화체험 및 휴양을 결합한 영어연수 과정으로 영국 전통문화를 고스란히 지닌 고풍스런 도시 버스, 영국의 대표적인 휴양도시 토키, 비틀즈와 축구의 도시 리버풀 중 선택 가능합니다. 40세 이상의 중장년들을 위한 과정으로 비슷한 연령대의 학생들과 수업을 받으며 연수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일대일 과정

학생이 원하는 어학연수 목적과 실력 향상이 필요한 부분 및 관심 주제 등을 고려하여 학생 개개인의 목표에 따른 맞춤 수업으로 설계됩니다. 단기간에 실력 향상이 필요한 영역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 및 개별적으로 영어 시험을 준비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성공유학을 위한 고객들의 선택,
안심 위에 진심 더한 유학네트

지난 1992년 창사 이래 ‘스마트 안심유학’의 길을 걸어온 유학네트는 고객이 유학을 계획하는 그 순간부터 해외에서 학업을 마치고 무사히 귀국할 때까지 고객의 유학 라이프와 함께하는 든든한 유학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 그 결과 27년간 유학 사고율 0%를 달성하고 있으며, 고객들의 지속적인 사랑에 힘입어 높은 성장을 이뤘다. 특히 지난 해에는 국내 약 3,300여 명, 해외 부문까지 합하면 무려 1만 7,000여 명이나 되는 이들이 유학네트를 통해 전 세계 곳곳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해나가고 있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1등하는 회사의 유학 컨설팅

누군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 하나는 나 이외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선택을 했느냐다. 많은 이들이 선택했다는 것은 그만큼 믿을 만하다는 신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학수속률 1위를 자랑하는 유학네트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 바로 그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차별화된 유학 컨설팅 능력이다. 평균 경력 10년 이상의 국내 유일의 ‘민간 유학전문가 자격’을 인정받은 100여 명의 유학네트 유학플래너들은 수만 명의 수속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가장 최적화된 유학 플랜을 제공한다.

특히 국내 14개, 해외 7개 등 국내외 총 21개의 고객상담센터와 전 세계 약 1,500여 개의 초중고, 전문대, 대학(원), 영어학교 등 세계적인 교육기관들과 긴밀하게 연결된 네트워크를 보유함으로써 고객이 안심하고 해외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폭넓은 인프라를 마련해두고 있다. 여기에 해외 교육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업무협약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완벽한 케어, 똑똑한 서비스로 ‘스마트 안심유학’ 실현

유학네트는 창사 이래 ‘스마트 안심유학’이라는 기업 가치를 바탕으로 상담에서부터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는 그날까지 모든 단계에서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에 따라 유학네트는 고객이 편안하게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입학 신청부터 비자 접수, 항공 예약,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공항 마중까지 원스탑(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수속 및 출국 준비과정에서 지속적인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진행 과정을 공유하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 풍부한 노하우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해결하는 민첩성으로 고객의 신뢰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또 출국 전에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현지 도착 후 필요한 사항들을 체크하고,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학비보장 제도’를 통해 고객의 수속비와 학비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해외에서도 멈추지 않는다! 해외 관리 서비스

유학회사의 역할이 고객을 해외 학교와 연결해주는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유학네트는 ‘스마트 안심유학’이라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학업부터 현지 유학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지원해주는 유학 서비스의 개념을 확장했다. 이에 따라 국내 담당 유학 플래너가 출국까지의 업무를 담당하고 나면 출국 이후의 현지 생활은 해외 ACS (After Care Service) 센터의 현지 담당자가 이어받게 된다.

해외 ACS 서비스는 국내와 해외 센터가 서로 연계해 고객을 지원하는 유학네트만의 특별한 시스템으로 고객뿐만 아니라 고객의 가족까지 안심할 수 있는 든든한 현지 관리 서비스로, 고객 입국 첫날 해외 ACS 담당자는 공항부터 숙소까지 안전하게 인도한 후 국내 담당 유학플래너에게 무사 도착을 알리는 것에서부터 업무가 시작된다.

이후 입국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고객이 현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정기적인 연락을 통해 불편 사항을 해결한다. 또 학업이나 비자 연장 등의 추가 계획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귀국 일정을 체크해 안전한 귀국을 돕는다. 이와는 별개로 유학네트는 유학 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국내외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24시간 연락 가능한 ‘24시간 긴급지원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모두가 주목하는 유럽 교육

유학플래너가 직접 체험한 알찬 정보들

그동안 우리는 유학이나 어학연수 하면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등의 영어권 나라를 떠올렸다. 하지만 최근 유럽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영어권 나라에 비해 유학이나 이민에 대한 규제가 비교적 적고, 학비 면제 등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유학네트가 세계적인 언어교육기관 EF와 함께 유럽의 생생한 교육과 학교 정보들을 직접 체험하고 왔다.



GERMANY

영어와 독일어 두 마리 토끼 잡기가 가능한 독일

독일은 유럽으로의 유학연수를 고민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고려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이다 보니 자국민은 물론 외국 유학생들에게까지 학비를 거의 받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독일의 경우 꼭 독일어가 아니더라도 영어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강좌들이 많이 마련돼 있어 점점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유학네트 팸트립단이 찾은 독일은 어디를 가든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나라였다. 또 학교면 학교, 일반 여행지면 여행지 어디서나 외국인들에 대한 친절이 몸에 배어있어 그만큼 학생들이 현지에서 생활하기도 편할 것 같았다.

특히 EF 뮌헨은 학생들을 각자의 필요와 실력에 맞춰 개인화한 소규모 어학 교실을 배정해 학생들이 보다 빠르게 영어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현지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독일 문화에 완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별 활동을 마련해줬다.

EF 베를린 또한 개별 맞춤형의 다채롭고 흥미로운 수업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게 언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이곳은 도보 20분 내 거리에 다양한 문화시설이 자리하고 있어 어학연수 생활을 더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F Munich

설립 연도	1965년
평균 인원	100~200명
한국인 비율	10% 미만
숙박 종류	자체기숙사, 홈스테이

EF Berlin

설립 연도	1965년
평균 인원	100~200명
한국인 비율	10% 미만
숙박 종류	자체기숙사, 홈스테이



FRANCE

예술과 요리 외에도 기회가 풍부한 곳, 프랑스

예술의 나라, 역사와 전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나라 프랑스. 발자크, 스탕 달, 보들레르, 랭보 등 문인들은 물론 마네, 모네, 마티스 등 화가들은 전세계 사람들의 감성을 담당해왔다. 파리는 세계 예술의 중심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장구한 문화의 역사를 지니고 있어서 우리에게도 친숙한 나라이다.

특히 최근에는 예술유학, 요리유학이 인기를 끌면서 프랑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 프랑스 파리와 니스에 있는 학교를 다녀온 팸트립단은 역시 ‘프랑스’를 외치며 감탄은 연발했다고. EF 파리는 첨단 유행 지구인 마레 지구 바로 북쪽, 그랑 볼르바르에 있어 파리 문화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가장 특이한 점은 프랑스에 자리한 센터답게 일반적인 어학연수 외에 프랑스 요리를 배울 수 있는 요리교실이 따로 마련돼 있다. 이곳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추후 프랑스 최고의 요리학교인 르 꼴동 블루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가 하면 EF 니스는 아름답고 유명한 ‘프롬나드 데 정글레’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팸트립단의 가장 큰 환호를 받은 학교이기도 하다. 어디를 둘러봐도 그림 같은 풍경에 시선을 빼앗기기 일쑤였기 때문. 특히 이곳은 현지 학교와 부지를 함께 공유하고 있어 학기 중에는 현지 프랑스 학생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도 장점이다.



EF Paris

설립 연도	1965년
평균 인원	100~200명
한국인 비율	10% 미만
숙박 종류	사설기숙사, 홈스테이

EF Nice

설립 연도	1965년
평균 인원	200~300명
한국인 비율	10% 미만
숙박 종류	자체기숙사, 홈스테이



SPAIN

학교마다 특유의 컬러를 지닌 개성과 열정 넘치는 스페인

각 나라는 저마다 고유의 컬러를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스페인은 유독 열정과 개성이 넘치는 곳이다. 지리적으로는 프랑스와 가깝지만 유럽 문화와는 다른 독특한 건축양식과 화려한 색채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특히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는 스페인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답게 과거의 유산과 현대적 인프라가 잘 어우러진 곳이다.

팜트립단은 이곳에서 비즈니스 밀집지역인 살라망카에 위치한 EF 마드리드를 찾았다. 현대적이고 세련된 건물로 지어진 EF 마드리드는 매년 100~200명 정도가 공부하는 학교로, 다양한 형태의 강의실과 컴퓨터 Lab실, 야외 테라스 등의 최신 시설이 완비된 영어학교.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깔끔한 모습에 팜트립단은 본인들이 직접 다니고 싶었다는 후문을 전하기도 했다.

스페인의 또 다른 학교인 EF 바르셀로나는 세계적인 건축 도시에 걸맞은 아름다운 학교 디자인으로 팜트립단을 맞았다.

경력 있고 열정적인 교직원이 최고의 서비스를 자랑하는 이곳은 10% 미만의 한국인 비율로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과 바르셀로나만의 문화를 체험하면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수 있다.



EF Madrid

설립 연도	1965년
평균 인원	100~200명
한국인 비율	10% 미만
숙박 종류	자체기숙사

EF Barcelona

설립 연도	1965년
평균 인원	100~200명
한국인 비율	10% 미만
숙박 종류	자체기숙사



워킹홀리데이, 준비됐나요?

떠나기 전에 고려해봐야 할 것들

워킹홀리데이는 청년(만 18~30세)들에게 워킹홀리데이 체결국에 체류하며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비자이다. 청년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소중한 기회이다.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기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먼저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가 풍성해야 자신에게 꼭 맞는 워킹홀리데이 국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의 철저한 준비로 시작되는 법.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것을 짚어봤다.



워킹홀리데이, 나의 선택지는?

‘워킹홀리데이’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나라로 호주, 일본, 캐나다 등이 있다. 많은 워홀러들이 선택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반드시 ‘나의 선택지’로 볼 필요는 없다. 찬찬히 살펴보면 꽤 많은 워킹홀리데이 선택지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를 떠날 수 있는 국가는 워킹홀리데이 체결국 20개국과 청년교류제도 체결국 1국으로 총 21개국이다. 워킹홀리데이 체결국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덴마크, 홍콩, 대만,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포르투갈, 이탈리아, 이스라엘, 네덜란드, 벨기에, 칠레이고 청년교류제도 체결국은 영국이다.

평균 1년 정도 체류하며 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 만큼 자신에게 필요한 경험은 무엇이고,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얻고 싶은지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 또 기후, 국민성, 물가, 치안, 자연환경, 인접국, 관광 요소, 교육의 질 등 나라별 특성과 장단점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에게 꼭 맞는 워킹홀리데이 나라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워킹홀리데이에 나의 시간을 얼마만큼 쓸까?

워킹홀리데이는 일반적으로 최대 1년의 시간을 허용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각각 1~2년, 3개월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영국은 최대 2년 동안 체류가 가능하다. 오스트리아는 워킹홀리데이 허용 국가 중 유일하게 체류 기간을 6개월로 한정하고 있다.

이처럼 나라별로 워킹홀리데이 최대 체류 기간이 다르므로 기간 확인은 중요하다. 워킹홀리데이 나라의 최대 체류 기간을 확인한 후, 얼마만큼의 시간을 워킹홀리데이에 쓸지, 또 그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1년의 시간을 워홀로 보내기로 결정했다면 1년 중 관광, 취업, 어학연수의 비율을 어떻게 배분할지 생각해야 한다. 외국에 1년 머문다고 해서 영어 실력이 저절로 붙는 것은 아니다.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1년간 의미 없는 잡무만 하고 돌아와서 워홀에 실패하는 워홀러들이 예상외로 많이 있다. 뚜렷한 목표를 갖고 도전할 때, 영어 실력과 특별한 경험, 여행의 즐거움을 모두 맛볼 수 있다.

또한 나라마다 어학연수를 허용하는 기간이 다르므로 자신이 선택한 나라에서는 몇 개월까지 어학연수를 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등 워홀 기간 1년 동안 자유롭게 어학연수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4개월, 6개월 등 어학연수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어학연수 허용 기간을 확인하여 자신은 그 기간을 어떻게 활용할 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워킹홀리데이도 플랜 B가 필요하다!

워킹홀리데이 나라마다 모집인원도 다르고 지원 시기도 다르다. 어떤 나라는 모집인원에 제한이 없는 대신 지원 시기가 매년 불특정한 경우가 있고, 어떤 나라는 지원 시기는 연중 수시로 자유롭지만 모집인원이 매우 적은 경우가 있다. 나라마다 신청 방법도 제각각이고 신청할 때 필요한 지원 서류도 다르다.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서 불합격 요소가 튀어나올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워킹홀리데이에 지원할 때, 가장 가고 싶은 나라에 지원하면서도 그 기회를 얻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유사한 환경의 나라를 2지망으로 생각하는 등 플랜 B를 세워두는 것이 좋다. 현지에서 직접 부딪혀 일자리를 찾아보는 것도 귀중한 경험이 되겠지만, 특정 분야에서의 유급 인턴십이나 자격증 취득 등을 노린다면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나라에서는 호텔, 레스토랑, 서비스 분야 인턴십 프로그램이 잘 발달되어 있다. 유학네트 등 믿을 수 있는 유학회사를 통해 이러한 프로그램을 참여하면 워킹홀리데이 기간 동안 영어 실력과 일자리, 경력 등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어학연수, 대도시 vs 중소도시 어디로 갈까?

우리나라의 서울과 부산이 다른 것처럼 해외의 다른 나라도 도시에 따라 그 규모와 분위기, 특성이 제각각 다르기 마련. 대도시에서의 어학연수와 중소도시에서의 어학연수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대도시 vs 중소도시, 내게 꼭 맞는 어학연수 도시는 어떻게 찾을까?

1. 나의 성향 파악하기

대도시

사람들이 많고 북적이는 곳을 좋아한다.
바쁘고 활기찬 생활을 즐긴다.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사귀고 싶다.

중소도시

사람들이 적고 조용한 곳을 좋아한다.
한가롭고 여유로운 생활을 즐긴다.
전원적인 분위기와 환경을 원한다.
안정적으로 학업에 집중하고 싶다.



2. 나의 연수 목적 파악하기

대도시

취업에 대비한 비즈니스 영어 등을 배우고 싶다
영어시험 준비과정 등 다양한 전문 과정을 수강해야 한다.
인턴십을 통한 현지 직무 경험이 필요하다.
국제적인 환경에서 국제도시의 글로벌한 분위기를 체험하고 싶다.

중소 도시

현지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어학연수 영어학교의 세심한 관리를 받기 원한다.
영어 공부에만 집중해서 영어 실력을 확실히 향상하고 싶다.
한국인이 적은 환경을 원한다.

3. 키워드로 장점 파악하기

대도시

#다양한 볼거리
#편리함
#교통의 요지
#편의시설 곳곳!

중소도시

#저렴한 비용
#착한 물가
#현지에 동화되기

전 세계에서 소통되는 '이것'

국제학생증의 모든 것

국제학생증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학생 신분'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다. 신분 증명만으로도 호텔 예약, 항공권 구입, 미술관, 박물관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할인 혜택과 부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학생뿐만 아니라 해외 여행을 떠나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필수품으로 여겨지고 있다.

국제학생증은 ISEC, ISIC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꼭 학생이 아니라도 발급받을 수 있는 국제유스증과 교직원이면 발급받을 수 있는 국제교직원증도 있다. 국제학생증 각각의 특징은 무엇이며 어떤 장점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봤다.



국제학생증 ISEC과 ISIC의 차이는?

국제학생증은 ISEC와 ISIC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두 가지 모두 세계에서 학생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라는 점에서는 똑같고 숙박, 교통, 공공시설 방문 등에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도 동일하지만 발급 기관에 차이가 있다.

국제학생증 ISEC는 국제학생교류센터에서 발급되며 국제학생증 ISIC는 한국국제학생교류회에서 발급된다. ISEC(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 Identity CARD)는 1958년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시작된 학생서비스 프로그램이었다가 1987년 공식적인 법인이 설립되면서 유럽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국제학생증이다. ISIC(International Student Identity Card)는 유네스코에서 인증하는 국제 학생 신분증으로 ISEC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SEC가 미국에서 시작된 국제학생증인 만큼 ISEC는 미국에서 쓰기 좋고, ISIC는 유럽에서 쓰기 좋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여행 전문가들은 ISEC와 ISIC 모두 세계 각국에서 통용되는 국제학생증인만큼 혜택의 정도가 비슷하다고 말하고 있다.

ISEC의 혜택은 공식 홈페이지 내 혜택 안내 페이지에서 나라별, 기관별로 확인할 수 있다. ISIC의 혜택 역시 공식 홈페이지 내 혜택 안내 페이지에서 항목별로 확인 가능하다.

[국제학생교류센터](#)

[한국국제학생교류회](#)

국제학생증 ISEC과 ISIC,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

국제학생증 ISEC는 학생에 대한 기준이 섬세하다. 풀타임 학생과 파트타임 학생을 나누어 학생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 풀타임 학생은 한 학기당 12학점 이상을 수강하는 학생으로 일반적으로 초등학생부터 대학원생, 6개월 이상 어학연수를 등록한 연수생 등을 포함한다.

파트타임 학생은 한 학기당 12학점 미만을 수강하는 학생으로 기간제 학교, 평생 교육원, 학점 은행제, 6개월 미만의 어학연수생 등을 말한다.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동등하기 때문에 사실상 구분은 무의미하며, 더 많은 형태의 학생에게 국제학생증을 발급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ISIC는 풀타임, 파트타임 구분은 없지만 주 15시간의 수업을 듣는 정규 교육과정에 등록된 풀타임 학생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

국제학생증 ISEC는 플라스틱 카드 외에 스마트폰 속 모바일 카드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카드를 분실하더라도 모바일 카드로 대신할 수 있다.

국제학생증 ISIC는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농협, 부산은행 등 국내의 다양한 은행 및 대학교와 제휴를 맺고 있어서 체크카드 기능을 겸한 국제학생증 발급에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국제학생증 ISEC는 체크카드 기능이 들어간 국제학생증을 발급하려면 우리 은행에서만 가능하다.



국제학생증 vs 국제유스증, 어떤 카드가 더 유리할까?

국제학생증은 ‘학생 신분’임을 증명하는 카드이고 국제유스증은 ‘젊은이’임을 증명하는 카드이다. 어떤 카드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각기 사용 목적이 다르고 나라별 혜택도 달라서 절대적으로 무엇이 유리하다고 단정 지어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단순 할인 혜택을 비교하면 국제학생증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대신 국제유스증은 이미 졸업했거나 학생이 아니더라도 나이 조건만 맞으면 발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유럽에서는 국제유스증 소지자가 할인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 프랑스 등 유럽 일부 지역에서 학생 혜택에 제한을 두고, 나이로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ISEC의 국제유스증 (IYEC)은 12세 이상 만 26세 미만인 경우 발급 받을 수 있으며, ISIC의 국제 청소년증(IYTC)은 만 30세 이하인 경우 발급 받을 수 있다.





Excellence in English Language Training since 1955

- ✓ 영국, 미국 및 캐나다에 위치한 성인/주니어 학교
- ✓ 최고의 수준의 코스와 강사진을 자랑하는 국제적인 명성
- ✓ 최신 장비 및 리소스를 사용하는 흥미롭고 학습자 중심의 수업
- ✓ 현대적이고 역동적인 센터들 안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전국 방방곳곳 어디에나 유학네트가 있다

유학네트는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등 총 14개의 국내 상담센터를 운영, 고객이 전국 어디에서나 유학네트의 스마트 안심유학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교한 유학 컨설팅, 스마트 안심서비스, 현지 밀착 서비스로 안심유학이 실현되는 곳, 스마트 안심유학 전문기업 유학네트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세요!

전국 어디서나 1588-1377 (대표번호)

인천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395
부평1번가빌딩 12층 1201-1호
032-612-3500

강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0
상경빌딩 3층 02-3481-1400

건국대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학생회관 2층 208호
02-455-8830

천안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안남로 17
덕영빌딩 3층 041-551-9090

단국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단국대학교 학생회관 3층 316호
041-565-9091

대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88
리더스빌딩 5층 042-822-8227

광주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길 31-11 1층
062-233-8171

전주 전라북도 전주시 기린대로 470 3층
063-254-8844

일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 121
삼희프라자 4층 031-917-7740

분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2번길 20 301호 031-702-3434

원주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80 3층
033-748-7740

청주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19 2층 043-276-9400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01-6
051-809-8558

대구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389 2층
053-421-8001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 국가 소개

수도	워싱턴 D.C. (Washington, D.C.)
화폐	미국달러(USD)
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983만 3,517km²• 세계에서 3번째로 큰 나라
언어	영어
시차	Pacific(-17), Mountain(-16), Central(-15), Eastern(-14)로 나뉜다. 동부 표준시를 사용하는 뉴욕 기준으로 한국의 오전 10시는 뉴욕의 전날 저녁 8시이다.
인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인 80%• 흑인 12.8%• 아시아계 4.4%• 다민족 2%• 원주민 0.8%
기후	<p>서부(샌프란시스코, LA, 시애틀 등) 지중해성 기후 지역으로 4~10월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맑은 날이며 나머지 기간에는 비가 약간 내리지만 따뜻한 편이다.</p> <p>북동부(뉴욕, 보스턴 등) 봄, 가을이 짧고 여름은 덥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춥다.</p> <p>서남부 (아리조나, 뉴 멕시코) 1년 내내 비가 거의 오지 않고 일교차가 크다. 동</p> <p>남부(텍사스, 플로리다) 습도가 높고 일년 내내 비가 많이 온다.</p>

<p>유학비자 종류</p>	<p>관광비자(無비자) 주당 18시간 미만의 수업에 한해 최대 3개월(12주)까지 별도의 비자 신청 없이 어학연수가 가능하다.</p> <p>F1비자 어학연수, 초중고유학, 대학(원)유학을 위한 학생비자이다.</p> <p>J1비자 교환학생을 위한 비자이다.</p> <p>아르바이트 F1비자 가능(정규 대학과정 이상 수강자에 한해 주당 최대 20시간까지 교내 아르바이트 가능)</p>
<p>평균 연수비용 (1개월)</p>	<p>학비 130만원 + 숙식비 100만원 + 용돈 및 생활비 50만원 = 약 280만원 ※상기 예산은 대략적인 예시일 뿐 실제와는 다를 수 있다.</p>
<p>장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화된 미국식 영어를 학습할 수 있다. • 학교 및 지역 선택의 폭이 넓다. • 조건부 입학 프로그램 통한 정규대학 진학이 가능해 대학입학/편입이 수월하다.
<p>단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명 학교에 한국인이 집중되는 편이다. • 총기 소지가 자유로워 안전에 대한 불안이 있다. • 타 국가에 비해 학생비자 취득 절차가 복잡하다.
<p>추천 관광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스베가스 • 그랜드 캐니언 • 요새미티 국립공원 • 자유의 여신상 • 할리우드 • 하와이 •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등

미국 주요 도시 소개

미국은 50개의 자치구와 한 개의 수도구로 이루어진 연방국가이다. 세계에서 러시아, 캐나다, 중국 다음으로 넓은 영토를 자랑하는 미국은 동부와 서부의 차이는 지형을 비롯해 문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극명하다. 동부와 서부를 횡단하는 데만 비행기로 6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넓은 영토에 ‘미국 속 유럽’이라 불리는 LA, 대표적인 휴양도시 샌프란시스코, 세계 경제의 중심 뉴욕 등등 도시마다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미국 동·서부를 대표하는 주요 도시들, 어떤 곳들이 있는지 만나보자.



San Francisco

미국 IT의 중심,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에는 세계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심인 실리콘밸리가 있고 휴렛팩커드, 인텔, 페어차일드, 텐덤, 애플, EA, 어도비, 이베이, 야구, 구글 등 4,000여 개의 기업들이 운집하고 있으며 미국 전자공업협회(AEA) 본부도 이곳에 자리하고 있다. 그야말로 IT의 중심지라 할 수 있다.

또한 미 서부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로 세계적 명문대인 스탠포드와 UC 버클리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여기서 배출된 우수한 인재들이 실리콘밸리 등에서 활약 중이다.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도 유명한데 빅토리아풍 건축물과 금문교, 케이블카 등 아름다운 풍경과 다양하고 자유로운 문화가 어우러져있다.

추천학교

- EC Language Centres
- EF
- ELS
- Kaplan International English
- St Giles



Los Angeles

영화의 메카, LA

영화계에 몸 담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별을 남기고 싶어하는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부터 그라우먼스 차이니즈 극장 등 수많은 영화관과 월드 스타들의 대저택이 모인 것으로 유명한 비버리힐즈, 거대 영화 스튜디오이자 테마파크인 유니버설 스튜디오,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에게도 꿈의 세계를 선사하는 디즈니랜드까지 영화와 관련된 모든 것이 집결한 도시, 바로 로스엔젤레스(LA)다. LA에는 수많은 유명 영화인들을 배출했고, 지금도 영화계 종사를 꿈 꾸는 세계의 영화 학도들이 모이는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칼아츠, UCLA 등의 학교가 있다.

추천학교

- EC Language Centres
- ELC
- EF
- Kaplan International English
- Kings Education



San Diego

American's Finest City,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주 최남단에 위치한 샌디에이고는 여름에 서늘하고 겨울에 따뜻한 지중해성 기후로 연중 쾌적한 날씨를 자랑하며 'American's Finest City',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불린다. 이 밖에도 미국에서 가장 기후가 좋은 도시, 세계적으로 여행가들이 꼭 가봐야 할 도시, 박물관의 고장 등 많은 수식어를 가진 매력적인 도시다.

UCSD, SDSU 등 유명 대학이 위치해 있으며 도시 곳곳에 수많은 박물관과 세계적인 레스토랑이 있어 관광지로도 유명하다. 또 낮은 범죄율과 안정된 치안으로 유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이상적인 도시다.

추천학교

- EC Language Centres
- EF
- ELS
- Eurocentres
- LSI
- Kaplan International English



New York

세계 패션의 중심지, 뉴욕

세계 패션의 흐름을 선도하는 도시 뉴욕은 패셔니스타를 대표하던 ‘빠리지앵’을 역사의 뒤편으로 흘려보내고 ‘뉴욕어 스타일’을 탄생시켰다. FIT, Parsons, Pratt 등 유수의 패션 전문 교육기관이 뉴욕에 밀집했으며, 패션 분야에서의 성공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뉴욕을 찾고 있다. 뉴욕은 창의적 영감을 얻기에도 좋은 도시다. 자유의 여신상, 그리니치 빌리지, 타임스퀘어, 센트럴 파크, 소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브룩클린 브릿지, 월스트리트, 카네기홀, 성 요한 성당 등 세계적 명소와 더불어 박물관, 미술관, 극장 등 볼거리가 많아 매일 새로운 경험을 해도 1년 365일이 모자라다.

추천학교

- EC Language Centres
- EF
- ELS
- Kaplan International English
- Kings Education
- LSI
- St Giles



Boston

미국의 아테네, 보스턴

Boston

보스턴은 미국 최고의 대학 도시다. 아이비리그 대학의 일부를 포함한 50개 이상의 종합대학 및 단과대학이 모여있고, 세계 최고의 대학 하버드 대학교와 MIT 등 명문대가 소재해 있다. 뉴욕의 화려함은 없지만 아름다운 풍광과 아늑하고 전원적인 환경에 학구적인 분위기로 교육 도시의 품격을 느낄 수 있다.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도시인 만큼 미국 최초의 공원인 보스턴 센트럴 파크, 미국 최초의 역사 박물관 폴 리비어 집 등을 볼 수 있다. 또 미국 독립혁명의 무대였던 만큼 파크 스트리트 교회, 보스턴 차 사건 비밀 집회소 등 미국 독립 전쟁 관련 유적지도 많이 볼 수 있다.

추천학교

- EC Language Centres
- ELC
- EF
- ELS
- FLS
- Kaplan International English
- Kings Education
- LAL
- LSI



대학 부설 영어 연수 프로그램

영어 연수를 하는 장소를 나눌 때 흔히 사설 영어학교와 대학부설 영어학교로 구분한다. 사설 영어학교는 쉽게 말해 우리나라의 YB*, 해커*와 같은 전문 영어 교육 기관에서 배우는 것으로 전체 어학연수 학생의 80%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대학부설은 국내 대학교의 어학당과 같이 대학교 내에서 영어과정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과거에는 프로그램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약간은 딱딱한 수업 방식과 엄격한 규정 등의 이유로 사설 영어학교에 비해 선호하는 학생이 많지 않았다. 최근에는 현지 학생과의 교류, 대학내 시설 이용, 해당 대학으로의 진학 등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대학부설 영어학교 중에서도 주요 명문대 부설 연수 프로그램들을 소개한다.



콜럼비아 대학교

Columbia University / 뉴욕

콜럼비아 대학교(Columbia University)는 미국에서 5번째로 오래 된 아이비리그 최상위권 명문대학교다. 뉴욕의 심장부인 맨하탄에 위치하며 인근에 다양한 상점과 스낵바, 레스토랑 등이 있어 생활편의성도 높다. 부설 영어연수 기관인 ALP(The American Language Program)는 1911년 설립되어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곳으로, 명문 사립 영어학교로 꼽히는 Eurocentres와 파트너 협약을 맺어 탁월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기가 좋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University of Pennsylvania / 필라델피아

콜럼비아와 마찬가지로 아이비리그에 소속되어 있는 명문대학으로서 아이비 리그 대학 중 전문대학원 프로그램이 가장 다양하고 우수한 대학으로 유명하다.

특히 세계 최초의 경영대학인 와튼 스쿨은 하버드와 스탠포드의 경영대학원과 함께 세계 최고의 경영대학원(Business School) TOP 3 중 하나이다.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부설영어 프로그램인 ELP(English Language Program)는 1960년에 설립되었고, 매년 세계 각국으로부터 1,800명 이상의 학생이 이 과정을 듣고 있다. 일반 영어과정 이외에도 Upenn의 본과 수업을 한 학기 또는 1년간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인정 프로그램, 비즈니스 전문 프로그램 등 선택의 폭이 다양하다.



미시건 주립 대학교

Michigan State University / 이스트랜싱

대표적인 명문대학교 중 한 곳인 미시건 주립 대학교(Michigan State University, MSU)는 미시건주 이스트 랜싱(East Lansing)에 위치해 있다. 이스트 랜싱은 그리 크지 않은 전형적인 미국의 중소도시이지만 대학가를 중심으로 열리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스포츠 활동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쉽게 가까워 질 수 있으며, 미국 전통의 문화를 이해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MSU의 부설 영어프로그램(ESL)은 1961년 설립 되었으며, 대학 내 기숙사 생활이 가능하고 캠퍼스 자체가 거대한 공원과 같은 분위기여서 미시간 지역의 자연 환경과 문화 탐방을 즐기는 동시에 영어실력도 쌓을 수 있다. 부설영어 프로그램과 함께 TOEFL 79점 이상, 대학교 성적이 우수한 경우 MSU의 본과 수업을 들으며 학점을 딸 수 있는 American Semester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조지아 공과 대학교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 애틀란타

조지아 공과 대학교(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는 조지아주(Georgia)의 주도인 애틀란타(Atlanta)에 위치한 주립대학으로 조지아텍(Georgia Tech), Tech, GT 등의 이름으로도 불린다. 35개의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지아주의 주립대학 시스템인 조지아 대학시스템(University System of Georgia)에 속해 있는 대학으로, 종합대학이지만 학교의 이름처럼 과학기술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공학분야에서는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대학으로 잘 알려져 있다.

미국 동남부 최고의 공대로 조지아주 뿐만 아니라 미국 동남부의 모든 주에서 인재들이 모여드는 대학이며, 전 세계에서 모여든 인재들이 다양한 학생 구성을 이루어, 해마다 가장 많은 여성 및 흑인 엔지니어를 배출하는 대학이기도 하다. 조지아텍은 약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대학부설 영어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다른 동부 대학들에 비해 저렴한 학비가 장점이며 TOEFL, GRE, GMAT 등의 다양한 시험과정도 운영된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USC,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로스앤젤레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USC)는 1880년 설립된 사립대학으로 36,000여 명의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재학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학교이다. 이 때문에 캠퍼스도 크고 학생들을 위한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 또한 USC는 대학 풋볼리그에서 강 팀으로 꼽히고 있는데, 같은 LA에 위치한 UCLA와는 라이벌 관계여서 두 팀의 경기가 있는 날은 경기장 앞이 통제될 만큼 많은 인파가 몰린다고 한다. USC의 부설영어기관인 USC International Academy는 집중영어과정은 물론 학부, 석사 진학을 위한 준비과정도 제공하고 있다. 미국 명문 대학/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나 이미 영어회화실력이 탄탄하여 학부/대학원 수준의 영어에 도전해보고 싶은 학생에게 추천한다.



미국, 취업스펙 쌓기도 가능!

WORK EXPERIENCE 프로그램

취업포탈 사람인에서 발표한 ‘기업이 원하는 스펙, 원하지 않는 스펙’을 살펴 보면, 지원자가 갖추어야 할 스펙 1위는 인턴 경험이 31.1%로 가장 높았다. 결국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직무에 맞는 경험인데, 미국의 주요 영어학교에서는 영어실력향상과 함께 직무 체험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최적의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다. 돈보다 값진 경험과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Work Experience 프로그램’을 만나보자.

Work Experience 프로그램은 일정 수준의 영어실력이 갖추어지면 미국 내 기업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직무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유급은 아니지만 직무 체험 후 수수료증과 함께 직무를 체험한 회사 및 기관에서 추천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영어실력이 부족하다면 집중 회화과정을 먼저 공부하여 영어실력을 쌓은 후 지원해보자.



샘플 학업 플랜

Kaplan

집중영어과정 24주



PIA

영어+직무연수 18주



**PIA at Marylhurst
University**

프로그램명 Service Learning

제공센터 포틀랜드

직무체험 기간 풀타임 6주

입학조건 중급(Intermediate, Lv 3) 이상

참가 학생들이 전하는 생생스토리

“저는 약 8주 동안 BMW에서 직무체험을 하면서 현지인들의 언어뿐만 아니라 미국 비즈니스 문화까지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제 수퍼바이저는 영어실력이 많이 부족한 제게 마케팅 분야에 대한 기본 업무도 친절히 설명해주시고, 식사 제안도 먼저 해주시는 등 제가 미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하루 7~8시간 직무체험을 하면서 영어실력이 많이 향상됨을 느꼈고 미국 친구들을 통해 미국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어로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보러 다니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습니 다. 저는 두 곳에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봤는데요, 구직 활동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포기할까..?’하는 유혹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며 도와주셨고 결국은 두 곳 모두에 합격해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며 가다 보면 미국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는 당당한 자신의 모습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EC Language Centres

- 위치
- 보스턴
 - 뉴욕
 - 워싱턴DC
 - 샌프란시스코
 - 샌디에이고
 - 로스엔젤레스
 - 마이애미
- 학교소개
- ISO 9001에서 인정하는 우수한 교육시스템 및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으며, 영국의 ARELS와 영국 정부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14명으로 제한하여 소규모의 집중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입학 시험을 통해 같은 수준의 학생들로 반을 배정하여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래서 추천!

- ✓ 유학네트 학생들만을 위한 ‘프리미어 영어과정 (일반영어 + 일대일영어) 제공
- ✓ 낮은 한국학생 비율과 높은 유럽학생 비율의 우수한 국적비율
- ✓ 대부분의 교사가 석사학위 이상을 보유하여 수준 높은 교육을 보장



ELC (English Language Center)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스턴 • 로스엔젤레스 • 산타바바라
학교소개	<p>1978년 설립되어 약 40여년의 전통을 자랑하며 낮은 한국학생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영어실력에 따른 10단계 레벨 구성으로 심도 깊은 수업을 제공한다. 미국의 동부와 서부를 대표하는 도시에 센터가 위치하며 센터 이동이 가능하다.</p>

이래서 추천!

- ✓ 공식 Cambridge 시험 센터
- ✓ TOEFL 없이 연계 대학으로 조건부입학 가능
- ✓ 각 도시의 다운타운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



EF (Education First)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스턴 • 시카고 • 호놀룰루 • 마이애미 • 뉴욕 • 샌디에이고 • 샌프란시스코 • 산타바바라 • 로스엔젤레스 • 시애틀 • 워싱턴DC
학교소개	<p>초급부터 고급과정까지 총 18개의 레벨로 나뉘어져 4~6주마다 한 단계씩 레벨업 할 수 있는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레벨을 업그레이드 할 때까지 무료수업을 제공하여 EF 프로그램만의 질적인 보장을 약속한다.</p>

이래서 추천!

- ✓ 2018년 평창올림픽 파트너(다섯번째 올림픽 파트너십)
- ✓ 수업+숙소 패키지 프로그램을 제공
- ✓ 온/오프라인을 혼합한 학습시스템 EF Efekta를 통해 빠른 영어 실력 향상



ELS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스턴 • LA • 샌프란시스코 • 시애틀 • 뉴욕 등 총 42개 센터
학교소개	<p>1961년부터 전 세계 143개 국가에서 온 12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영어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12단계의 영어 레벨, 최첨단 언어 기술 센터(Language Technology Center), 다양한 시험 서비스 및 대학 진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개인별 맞춤 접근법과 학생의 목표 달성을 위한 헌신을 통해 성공을 보장한다. ELS는 전 세계적으로 650개 이상의 대학과 제휴 관계를 맺고 있다.</p>

이래서 추천!

- ✓ 모든 센터는 공식 TOEFL 시험 센터로 미국 내에서 최대 규모의 TOEFL 시험 제공 기관 중 하나
- ✓ 경력이 풍부한 교사진 중 많은 교사가 석사/TESOL/TEFL 자격증을 보유



Eurocentres San Diego

위치	샌디에이고
학교소개	British Council, ALTO, FIYRO의 회원교로 전세계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영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영국 Oxford International 그룹에 속해있다. 주요 교통서비스, 쇼핑센터, 상점, 레스토랑 등이 갖춰진 시내 중심부에 위치해있다.

이래서 추천!

- ✓ 샌디에이고 내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학비로 학업 가능
- ✓ 유로센터 개인맞춤형 목표설정 시스템인 JET Analysis를 통한 철저한 학생관리



FLS International

- 위치
- 뉴욕(저지 시티)
 - 보스턴
 - 필라델피아
 - 글렌도라
 - 풀러턴
 - 미션 비에이호
- 학교소개
- 영어연수 프로그램 및 대학진학서비스(UPP)를 제공하는 영어 전문 교육기관이다. 영어레벨이 중상급 이상이 되면 대학의 수업을 청강하고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일정 레벨을 수료하면 연계된 대학으로 TOEFL 없이 진학이 가능하다.

이래서 추천!

- ✓ 대학 내 부대시설을 모두 이용하며 대학생활 경험 가능
- ✓ 100여개 이상의 FLS 연계대학에서 조건부 입학허가서 발급



INTO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스턴 • 버밍엄 • 코벨리스 • 페어팩스 • 포트 콜린스 • 헌팅턴 • 매디슨 • 세인트 루이스 • 탬파 • 풀먼 • 블루밍턴-노멀
학교소개	미국과 영국의 명문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관으로 2005년 설립되었다. 영어 연수과정은 물론 명문 주립대학 진학 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낮은 내신성적과 영어 실력으로도 미국 명문 주립대에 입학이 가능한 대학진학보장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이래서 추천!

- ✓ 대학교 기숙사 및 시설 이용 가능
- ✓ 대학진학준비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하면 명문 주립대학교 2학년으로 진학 보장
- ✓ 학점 이수 과정으로 영어과정 수강과 함께 본과 교양과목 수강 가능



Kaplan International English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스턴 • LA • 샌프란시스코 • 뉴욕 등 총 18개 센터
학교소개	<p>국가 별 교육기관에 의해 공인된 유학 및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독자적 K+ 학습 프로그램 및 차별화된 교습 방법을 자랑한다. 또한 일반영어 뿐만 아니라 시험준비과정부터 비즈니스영어 및 해외 인턴십과정까지 폭넓은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p>

이래서 추천!

- ✓ 정기적인 시험 및 담당교사와의 면담을 통한 학생 관리
- ✓ 전세계 100여개 이상의 대학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조건부입학 제공
- ✓ 협력 대학 중 일부는 TOEFL 없이 진학 가능



Kings Education

- 위치
- 뉴욕
 - 보스턴
 - 로스엔젤레스
- 학교소개
- 다양한 특별활동을 통해 영어가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수강기간에 상관없이 집중적이고 세심한 학생 케어를 제공하며 최적의 학습환경에서 수준 높은 영어과정을 제공한다.

이래서 추천!

- ✓ LA센터는 활동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중시하는 학생들에게 추천
- ✓ 보스턴과 뉴저지(로랜스빌) 센터는 학구적인 캠퍼스 생활을 경험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추천
- ✓ 관심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공부하는 영어플러스 과정 제공



LAL Language Centres

- 위치
- 포트로더데일
 - 보스턴
- 학교소개
- 미국뿐 아니라 영국, 몰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다국적 영어학교이다. 균형 잡힌 국적비율로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으며, 소규모

이래서 추천!

- ✓ 저렴한 학비와 낮은 한국학생 비율로 영어학습의 효율 극대화
- ✓ 영어교육 프로그램 인증기관인 CAE(Commission on English Language Program Accreditation)에서 인증



LSI (Language Studies International)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클리 • 샌디에이고 • 보스턴 • 뉴욕
학교소개	<p>대부분의 센터가 중소규모로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매우 가까워져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다. 그로 인해 가족적이고 친근한 학생 관리를 통해 영어실력 향상뿐만 아니라 즐거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준다. 한국 학생수가 특히 적고 다른 영어학교에 비해 유럽 학생이 월등히 많은 학교로 정평이 나 있다.</p>

이래서 추천!

- ✓ 센터당 총 학생수가 50~150명 정도의 소규모 영어학교로 학생 관리가 뛰어남
- ✓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곳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편리한 교통을 자랑



PIA at Warner Pacific University

위치	포틀랜드
학교소개	미국 교육인증기관 AAIEP 회원교이자, ACCET, TESOL, ORETESOL, NAFSA, JAFSA 등의 인증을 받은 공신력있는 교육기관이다. PIA가 위치한 포틀랜드는 미국에서도 조용하고 안전한 지역이며 대중교통 또한 잘 발달해 있어 생활하기에 편리하다.

이래서 추천!

- ✓ 오리건주는 소비세가 없고, 다른 대도시에 비해 저렴한 생활비
- ✓ 일정 레벨을 성공적으로 수료하면 비영리기관(NGO)에서 직무연수 가능
- ✓ 매주 1시간 무료 1:1 수업을 통해 부족한 부분 밀착 케어



St. Giles International

- 위치
- 샌프란시스코
 - 뉴욕
- 학교소개
- 1955년 영국 런던에서 처음 시작된 St. Giles 영어학교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 브라질 등의 주요 도시들에 7개의 영어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영어교육재단이다. 대부분의 센터들이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며, 다양한 흥미거리가 도처에서 제공된다.

이래서 추천!

- ✓ 학급당 최대 5명의 학생으로 집중적인 학습이 가능한 플래티넘 영어과정을 운영
- ✓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학비로 학업이 가능



TLC (The Language Company)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찰스턴 • 에드먼드 • 포트웨인 • 커크스빌 • 올랜도 • 사우스벤드 • 톨레도 • 웨더포드
학교소개	<p>대부분의 센터가 중소도시에 위치하고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자랑하며, 외국학생에게 우호적인 환경으로 보다 가깝게 미국 문화를 접할 수 있다. 대학 내 캠퍼스에 위치한 경우 대학의 모든 시설 및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대학이 TLC 학생들도 대학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TLC 센터가 위치한 TLC 연계대학으로 조건부입학도 가능하다.</p>

이래서 추천!

- ✓ 평균 10명 이하의 소규모 수업 운영
- ✓ 우수한 대학진학서비스 및 미국 전역의 많은 대학과 협력관계를 통해 조건부입학 제공
- ✓ 대학 캠퍼스 내에 위치하여 다양한 대학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



미국, 현지 이야기가 궁금하다

유학 중에 겪게 되는 다양하고 유익한 경험과 느낌뿐만 아니라 현지에서의 생활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유학네트 공식 특파원, 글로벌리포터가 전하는 이야기를 소개한다.

미국의 운전면허 시험

미국의 운전면허는 차량국인 DMV(Department of Motor Vehicle)에서 취득이 가능해요. DMV는 예약 방문이 가능하지만 제가 예약할 시점에는 이미 꽉 차서 한달 뒤에나 예약이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당장 학교에 차를 타고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 당일에 줄을 서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줄을 서고 입장하면 서류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거주지 증명서류, i-94, 여권이 필요해요. 그렇게 서류를 통과하면 번호표를 받게 되는 데요, 이때부터 무한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한국처럼 빨리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냥 여유를 가지고 가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3시간 기다렸습니다. 기나긴 기다림 이후, 윈도우에 제 번호가 뜨면 시력검사와 시험 비용을 지불하고 사진을 찍으러 갑니다. 이 과정을 모두 끝내셨다면 필기시험을 보러 갈 수 있습니다. 시험은 컴퓨터 또는 종이 시험 중 한가지를 택해서 볼 수 있고 한국어로도 시험이 가능해요! 저는 컴퓨터로 시험을 보고 어렵지 않게 통과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험보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 조금만 공부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통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얼바인 백재은 리포터



미국의 Tip 문화

저는 미국에 와서 가장 생소하고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Tip 문화였어요. 솔직히 미국에서는 선택이 아닌 거의 의무시 되는 이 Tip 문화를 외국인인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을 때 임금을 받는 종업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굳이 내가 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수업시간에 이 Tip 문화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납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레스토랑이나 바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자신들이 받는 임금만으로는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렵고 최저임금 수준을 높히더라도 좋은 여건의 생활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주는 Tip으로 부수적인 돈을 벌고 가끔은 이 팁이 기본급보다 많은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Tip을 주는 정도도 레스토랑, 택시, 미용, 바, 호텔 등 장소나 상황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데요, 저도 너무 헷갈려서 적어도 레스토랑에서 얼마만큼의 팁을 줄 것인지 저만의 방식을 정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점심에는 음식값의 10%~15%, 저녁에는 음식값의 20%~22%로 정했습니다. 혹여 어떤 음식점의 경우에는 팁을 자신들이 임의로 정하여 포함해서 계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건 계산 전에 본인 스스로 잘 확인 하셔야 합니다.

"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 로마에 왔으면 로마의 법을 따르는게 당연하겠죠? 현재는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나면 저도 당연히 팁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당황스럽고 얼마를 지불해야하는지 고민에 빠질 수도 있지만 금방 적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포틀랜드 강민아 리포터



홈스테이 or 아파트

어학연수를 처음 가게 되면 숙소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바로 홈스테이를 하거나 아파트를 구해 사는 것인데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파트가 홈스테이에 비해 비싸더라고요. 사실 저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어요. 아파트에 산다고 해도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셰어하우스로 아파트 한 곳에 2개의 방과 거실을 가지고 있어 한 방에 2명씩 룸메이트와 함께 써야 하거든요. 거기에 청소와 빨래, 음식까지 직접 해서 먹어야 하기 때문에 만사가 귀찮은 저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아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아셨는지 유학네트에서는 저에게 아주 좋은 홈스테이를 추천해 주셨답니다.

하지만 아파트라고 해서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파트에는 풀장이 2개나 있어서 여름인 지금 최적의 장소라고 말할 수 있죠. 매일 풀장에 가서 수영을 하며 땀을 식히고 하루를 즐길 수 있으며 또 본인만의 공간이기 때문에 친구들을 불러 파티도 하고 음식도 먹으며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답니다. 가장 큰 메리트는 학교와의 거리가 홈스테이의 절반 정도라는 것이죠.



홈스테이의 경우 평균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1시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버스로 20분이면 갈 수 있고 걸어서 50분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아침잠이 많은 분들에게는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아침잠 없고 귀찮음이 심한 저에게는 홈스테이가 최적의 장소였어요. 매주 화요일 홈스테이 맘은 빨래를 해줬고 매일매일 방 청소를 해줬으며 매일 아침저녁 저에게 맛있는 만찬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현지인들과 살며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영어를 연습할 수 있었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죠.

근데 사실 모든 홈스테이가 저처럼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홈스테이를 잘못 가게 되면 와이파이도 안 되고 주인의 눈치를 보며 청결하지 못한 공간에 사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유학네트를 통해 최적의 공간으로 홈스테이를 갈 수 있었습니다. 유학네트 짱짱!! 모든 친구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하며 제가 나가면 그곳으로 본인이 들어가고 싶다고 말한 친구들도 엄청 많았을 정도로 너무 좋은 최상의 곳이었어요.

로스엔젤레스 정안나 리포터



미국 학생비자 받는 법

미국은 유학·어학연수 선호도 1위의 나라이지만 학생비자를 발급받기까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깐깐한 심사를 통과해야 하기에 부담스러운 나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유비무환’이라고 준비를 갖추고 있으면 근심이 없다는 말처럼 준비만 되어있다면 미국 학생비자도 근심할 것이 없다. 유학네트와 함께 미국 학생비자를 쉽게 준비해 보자.



미국 유학비자(F-1/M-1)

미국에서 3개월 이상의 어학연수나 정규 학업을 계획한다면 유학비자(F-1/M-1)를 신청해야 한다. F-1 비자는 가장 흔한 미국 학생비자로 어학연수 및 일반 학부, 대학원과정 등이 해당되며 M-1 비자 역시 미국 학생비자로 기술 습득을 위한 직업학교를 다니고자 할 때 신청해야 한다.

학교에 입학신청서를 보낸 뒤 등록 확인이 되면 입학허가서(I-20)를 수령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 비자를 받게 된다. 비자는 우선 5년으로 받지만 입학허가서(I-20)상에 명시된 학업기간 동안만 미국 내 거주가 유효하므로 더 머물고자 한다면 학업 기간을 연장하여 비자 상태를 유지시키도록 해야 한다. 학교를 옮길 경우 트랜스퍼 절차를 거쳐 새로운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I-20)를 다시 받되 이전에 구입한 서비스 넘버(SEVIS number)는 동일해야 한다.

- ✓ 학생비자는 미국 내에서 갱신 또는 재발급이 불가능하며 미국 외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만 가능하다.
- ✓ 입학허가서(I-20) 수령 후 SEVIS 비용과 비자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고, 비자 인터뷰 가능일과 시간을 예약하도록 한다.
- ✓ 입학허가서(I-20)는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달 이상 소요되므로 미리 준비하도록 한다.



학생비자(F-1)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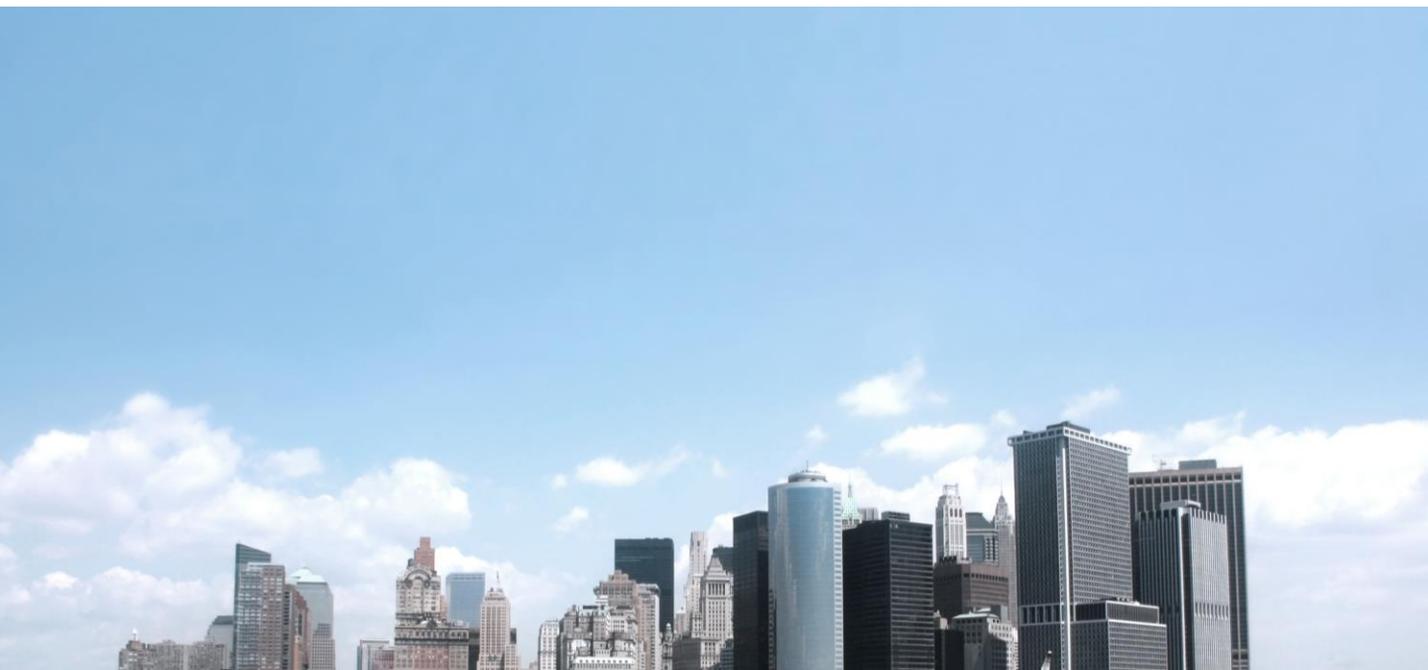
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비자 인터뷰 당일 신청자가 준비해 와야 하며, 인터뷰 날짜 이전에는 그 어떤 서류도 대사관에 제출할 수 없다. 또한 주한 미국대사관에 비자를 신청/수속 중인 모든 신청자는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

학생비자를 발급 받은 후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옮기면 입학허가서(I-20)를 다시 받아야 함은 물론 비자도 다시 받아야 한다. 또한 입학일을 변경하는 경우 출국 전에 동일한 SEVIS 넘버를 가진 입학허가서(I-20) 또한 다시 받아야 한다. 비자 준비과정에서 서류가 누락되거나 인터뷰에서 한번 비자 거절을 당하면 재심사 시에도 비자 발급 확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니 처음 준비할 때 전문가와 함께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콜센터를 통한 예약 및 변경

서울 02)3483-1939, 한국 내 모든 지역

국번 없이 1666-2297.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준비서류

-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또는 생활기록부 (학생인 경우)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직장인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원
- 시티은행을 통해 비자 신청 수수료 납부 후 받은 영수증
- 본인의 DS-160 확인 페이지와 이메일 주소
- 미국 학교 입학허가서(I-20) 원본
- SEVIS 비용 납부 영수증
- 인터뷰 예약 확인서
- 재정서류 (잔고증명서 원본, 소득금액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세금신고서 등)
- 사진 1매
- 자세한 정보는 주한미국대사관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초용어 바로 알기

I-20란?

학교에서 발행되는 입학허가서인 I-20는 미국 내에서 학생 신분 인증서라고 할 수 있다. I-20를 받아 미국에 가면 입국심사를 받을 때 이민국 직원이 I-20에 입국 허가 번호를 기재하고 SEVIS 시스템에 학생의 입국 사실을 알리게 된다. I-20는 미국을 떠나는 순간까지 항상 소지해야 하며 만일의 분실 위험을 대비해 사본을 만들어 두어 보관하는 것이 좋다.

SEVIS란?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의 약자로 미국 유학생 관리 시스템(유학생 신상정보 추적 시스템)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학업을 목적으로 유학비자(F, M)와 문화교류비자(J)로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의 신원을 이 SEVIS 시스템으로 관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학생비자 신청자 또는 동반자들은 반드시 미국 내 학교나 기관을 통해 SEVIS에 등록된 소정의 양식(I-20)을 발급 받아야 하며 동시에 각 신청자들은 SEVIS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양식을 작성하고 비용을 납부하여 본인의 이름이 SEVIS 웹사이트 상에 등록되도록 해야 한다.

DS-160이란?

DS-160은 기존 사용하고 있는 비이민비자 신청서인 DS-156, DS-157, DS-158을 모두 통합하여 하나로 만들어진 온라인 비자 신청서 양식으로 모든 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웹 기반의 비자 신청서인 DS-160을 인터뷰 2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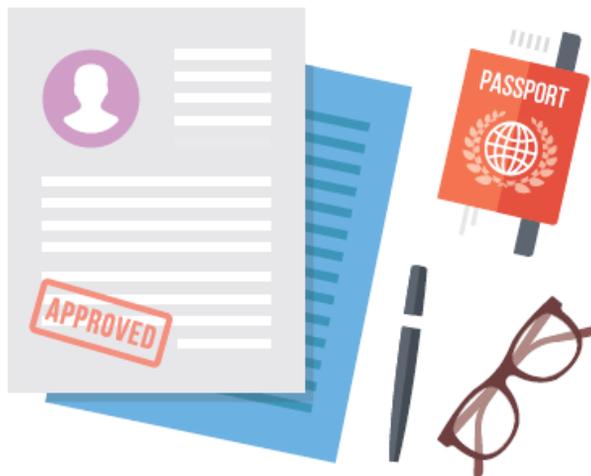
I-94란?

해외 여행자가 미국 방문 시 기내에서 작성하는 흰색 입출국 신고서를 말한다. 합법적으로 미국을 입국했다는 증빙서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출국 시에는 합법적인 기간 동안 미국 체류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이전에는 이를 미리 작성해서 입국해야 했으나 지금은 이 과정 없이 바로 입국한 후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 홈페이지에서 I-94 전자증명서를 출력하여 여권/비자와 함께 보관하면 된다.

학생 & 직장인, 비자 준비 주의사항

학생

학생은 직장인에 비해 비자 발급 성공률이 높은 편이나 가장 중요한 점은 재정상태다. 미국에서 학업을 하는 동안 국내에서 경제적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더불어 한국 내 학업성적이 저조하거나 잦은 휴학을 했거나 자퇴를 했다면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다만 과거에 성적이 안 좋았다가 최근에 성적이 꾸준히 올라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다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직장인

현재 연봉이 높다고 무조건 비자 발급이 가능한 것이 아니며 굳이 한국 내 교육기관을 두고 미국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득력 있는 인터뷰가 요구된다. 또한 경제적 기반이 본인에 있으므로 생계를 중단하면서까지 유학을 가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야 하며 나이가 많을수록 학업 후 국내로 돌아올 것이라는 강력한 사회적, 경제적 기반의 입증이 요구 된다. 미국 내에서도 인지도가 떨어지는 학교를 가고자 한다면 비자 거절 확률이 높으므로 학교 선정을 잘 해야 한다.

I-20 구성

- 1페이지: 본인의 개인 정보, 학교 정보, 프로그램 정보 등
- 2페이지: 학생이 준수해야 할 사항
- 3페이지: 학교 담당자가 학생의 여행이나 고용 등에 대한
- 내용이나 서명을 쓸 수 있는 공간

현명한 미국 라이프를 위한 조언

나라마다 각기 다른 문화와 생활양식이 있기 마련이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사람관계의 질을 좌우하기도 하는 생활에 절부터 알아두면 생활에 편리한 적응 팁까지. 우리나라와는 다른 미국의 문화!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보를 모아봤다.

한국인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팁문화

레스토랑에 가면 팁문화 때문에 테이블마다 정해진 담당 웨이터가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처음에 자리 안내할 때 혹은 음료 주문 받을 때 담당웨이터가 자기 소개를 한다. 나중에 계산할 때 현금일 경우 팁을 포함한 금액을 계산서에 놓고 나오면 되고, 카드 계산 시 영수증에 서명할 때 원하는 만큼 팁을 쓰고 서명하면 된다. 참고로 패스트푸드점이나 교내 식당, 테이크 아웃점에서는 팁을 줄 필요가 없다.

재채기

다른 사람 앞에서 재채기 하는 것은 실례! 부득이하게 재채기를 하게 될 경우 ‘Excuse me’라고 양해를 구하고 누군가가 재채기를 하면 ‘Bless you’라고 이야기해주는 센스!

저렴함에 속지 말라

가격표에 붙여진 가격 외에 지역(주)에 따라 다른 세금이 붙기 때문에 물건을 사려고 카운터에서 계산을 할 때 다른 가격을 제시해도 놀라지 말라. 보통 세금(Tax)은 7%이나, 주에 따라 다르므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보다 저렴한 쇼핑을 위해 오리건 주와 같이 세금이 없는 주에 가서 물건을 사기도 한다.

SNS 약어

친구들과 SNS 대화를 할 때 ‘축하’를 ‘ㄷㄷ’, ‘감사’를 ‘ㄱ사’와 같이 줄여서 쓰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약어를 많이 사용한다. 흔히 사용하는 간단한 표현을 몇 가지 살펴보자.

- Long time no see. (오랜만이야) → LTNS
- Oh, I see. (알았어) → OIC
- I have no idea. (모르겠어) → IHNI
- No problem. (문제없어) → NP
- Good luck. (행운을 빌어) → GL



Learn English in Exciting Cities
around the World



6
countries



19
cities



24
schools



45,000
students
per year



over **25**
years of
experience



four-time winner of the ST Star Chain School Award

www.ecenglish.com



한 ^[수] 秀 위의 안심유학

유학네트의 안심유학 서비스,
어떤 점에서 타 업체보다 한 수 위일까요?



유학네트에는 학비 등의 제반 비용에 대한 직접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회원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해외 송금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유학네트는 평균 근속연수 8년 이상의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한
우수한 유학플래너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학네트는 After Care Service(ACS)를 통해 국내 유학플래너와
현지 한국인 담당자가 출국 회원의 현지 적응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유학네트는 국내 최대 카드사인 하나카드와의 제휴를 통해 업계 최초로
어학연수 학비 12개월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공신력 있는 유학회사입니다.



유학네트는 중소기업청(現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INNO Biz 업체로
정부기관이 인정한 기술혁신형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 수 위!

유학네트

◇ 55만 유학생이 선택한 스마텔
당신의 선택도 스마텔입니다.

◇ 미국, 캐나다 갈땐 역시 **스마텔!**

스마텔 유심은 미국, 캐나다 현지 통신사의
유심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BUT

요금은 현지보다 더 저렴합니다.

스마텔은 IAE유학네트가 인증한
최고의 유학생 휴대폰 전문기업입니다.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스마텔미국유심 @스마텔캐나다유심



1566-4200

 **smartel** www.smartel.co.kr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6길 26 스마텔빌딩

근무시간: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근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이용하세요.)



Kings English opens up your world



“As I wanted to make considerable improvement in my English, I decided to take the full-time course so that I could intake the most input. I do have specific future plans for my career as an elementary school teacher... For this reason, my English skills might influence on the quality of my teaching and English class. Furthermore, English skills will be required for my master's degree in the near future.

In my opinion, my English has improved remarkably.”

Do Yeon Kwon

Studying the Diploma of English at Kings London



TOP STUDY AND LIFESTYLE
LOCATIONS IN THE
UK AND USA

INNOVATIVE, OUTCOME-
DRIVEN COURSES

Focusing on:

- Fluency and experience
- Professional success
- Exam success
- University success

EXCELLENT TEACHING
AND FACILITIES

- Modern, well-equipped classrooms
- Small class sizes
- Experienced teachers
- Dynamic learning methods

Visit
kingseducation.com
to find out more



Learn a Language Abroad

왜 EF를 선택할까요?

- 케임브리지 대학교와 공동개발한 독자적인 학습법 Efecta™ 시스템 사용
- 1983년 서울 올림픽부터 이어진 올림픽과의 교육 파트너십
- 전 세계 EF 캠퍼스의 한국 학생 평균 비율 5% 내외로 다양한 국적 비율을 자랑
- EF가 직접 운영, 관리하여 안전하고 검증된 홈스테이 및 기숙사

EF의 프로그램

- 초중고생 대상 개별 및 그룹 어학연수
- 고등/대학생 대상 어학연수
- 해외유학 준비과정
- 성인, 직장인 및 기업 임원 대상 어학연수

EF 캠퍼스 국가

미국 / 캐나다 / 영국 / 아일랜드 / 몰타 / 남아공 / 호주 / 뉴질랜드 / 프랑스 / 독일 / 이탈리아 / 포르투갈 / 스페인 / 코스타리카 / 아랍에미리트 / 싱가포르 / 중국 / 일본

11개 언어
52개 캠퍼스
100+개 국적 구성
전 연령, 모든 수준을
위한 프로그램



International
Language Campuses